

DISASTER & CRISIS COVERAGE

# 취재 기사를 위한 재난보도 매뉴얼

데보라 포터(Deborah Potter)

셰리 릭카르디(Sherry Ricchiardi) 지음





## 취재 기자를 위한 재난보도 매뉴얼

기획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

필진 | 테보라 포터(Deborah Potter), 셰리 릭카르디(Sherry Ricchiardi)

발행인 | 김병호

편집인 | 김동철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전화 02-2001-7871 팩스 02-2001-7860

[www.kpf.or.kr](http://www.kpf.or.kr)

제작진행 | 아르떼203

121-839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8길 61(서교동, 1층)

이 매뉴얼 핸드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원 저작권자인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의 승인을 받아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거듭나는 대한민국”

DISASTER & CRISIS COVERAGE

# 취재 기자를 위한 재난보도 매뉴얼

데보라 포터(Deborah Potter)

셰리 릭카르디(Sherry Ricchiardi) 지음



## 저자의 말

*Authors' note*

본 재난보도 가이드(Disaster Guide)는 1~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전문가다운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방법 및 개인의 안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 상황은 뉴스 제공자인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종종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2부에서는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다루고, 기자들을 포함한 언론기관이 슬픔에 빠진 희생자와 생존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취재·보도에 대한 유용한 제안을 하고 있다.

## 저자 소개

*About the Authors*

### **데보라 포터(Deborah Potter)**

NewsLab.org의 디렉터인 데보라 포터(Deborah Potter)는 언론인 양성 전문가이자 베테랑 기자인 동시에 집필가로 1998년부터 비영리 언론 보도 정보 제공기관인 NewsLab의 수석 디렉터로 근무해 오고 있다. 현재 PBS의 “Religion and Ethics Newsweekly”의 객원 특파원 및 “American Journalism Review”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내 및 해외에서 언론인, 교육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널리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과거 Pyoneter Institute의 조교수를 역임할 당시에는 전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기사 작성, 보도 관리 및 보도 윤리와 관련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주도하기도 했다. 데보라 포터가 작성한 기사와 저작물은 FTNDA Communicator, News Photographer 등을 통해 출판되었다.

## 셰리 릭카르디(Sherry Ricchiardi)

셰리 릭카르디 박사는 American Journalism Review의 수석 집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문제 전문가로, 현재 인디애나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릭카르디 박사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 및 남미 국가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기자로서, 그리고 기자 교육 담당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미디어와 테러리즘”에 관한 컨퍼런스에 주요 연사로 참여했으며, 이를 계기로 폭력 관련 보도를 한 많은 기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트라우마 이슈와 재난보도에 관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지에서는 국제언론인협회의 후원을 받아 인신매매 관련 워크샵에 참여했다. 현재는 콜롬비아 대학의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위한 닛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전쟁 범죄 프로젝트 (Crimes of War Project)”의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서안지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다룬 기사를 발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가 수상하는 언론비평상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수상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대학에서 풀브라이트장학생으로 수학하였으며, 두브로브  
닉 대학의 언론학과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1990년  
대에 발발한 발칸반도 전쟁 기사를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디애나전문기자협회가 전선의 종군 기자에게 수여하는  
'용기 있는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릭카르디 박사가 쓴 기사  
는 Miami Herald, St. Louis Post-Dispatch, USA Today 등을  
포함한 주요 매체에 실렸으며 현재까지도 The Des Moines  
Register지의 취재기자, 일요판 잡지 기자 및 여행 칼럼니스  
트, 그리고 미주리대학 언론대학원이 발간하는 Columbia  
Missourian지의 지역담당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제언론인센터 소개

*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

※ 본 매뉴얼은 미 워싱턴 D.C.에 소재한 국제언론인센터(ICFJ)에서 발간하였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해 한글본으로 번역되었다.

국제언론인센터(ICFJ)는 비영리전문가 단체로 언론의 독립성과 역동성이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믿음 아래,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언론인을 양성, 언론보도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CFJ는 1984년부터 176개국 55,000 여명의 언론인들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ICFJ는 언론보도 수준 제고를 목표로 세계 각국의 기자와 언론사 경영진 대상 현장 교육, 워크샵, 세미나, 펠로십,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CFJ는 언론인으로 새롭게 첫발을 내디딘 수습기자에서부터 자신의 보도역량을 한층 더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베테랑 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교육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ICFJ가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교

육 매뉴얼에는 취재, 기사 작성, 정보 제공원 활용 등의 기본적인 스킬을 다룬 자료에서부터 시민 기자용 지침 등과 같은 뉴미디어 교육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는 [www.icfj.org/publications](http://www.icfj.org/publicatio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 2009 - 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이 매뉴얼 핸드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의 승인을 받아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원 저작권은 국제언론인센터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제언론인센터의 허가 없이는 본 매뉴얼을 복사, 판매, 인쇄, 번역 혹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저작물의 재생산 및 배포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Title 17 of U.S. code)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www.copyright.gov](http://www.copyright.gov)를 방문하십시오.

본 매뉴얼 인쇄본의 재출력, 번역 혹은 구매 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ICFJ 대외담당 디렉터인 Dawn Arteaga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dartega@icfj.org](mailto:dartega@icfj.org)

-전화: 202.737.3700

## 목차 Contents

### 1부

### Section 1

1 서론 Introduction	16
2 편집국의 준비사항 Newsroom preparation	20
3 재난보도 계획 수립 How to develop a disaster plan	24
4 미래 재난 전망 Preview of destruction	35
5 보도 시작 가이드 Newsroom start-up guide	43
6 편집국 재해복구 계획 Newsroom back-up plan	47
7 개인적인 준비 Personal preparation	51
8 위기 보도 운영 방침 Managing crisis coverage	56
9 위기 보도 요령 Reporting a crisis	63
10 안전 유지 방안 Staying safe	70
11 후속 조치 Following up	75
12 인터넷 자료 활용 방안 Internet resources	80

1 서론 Introduction	86
2 트라우마성 스트레스의 이해 What is traumatic stress?	90
3 트라우마성 스트레스의 징후 What are the signs?	93
4 트라우마의 본질 Nature of trauma	97
5 희생자 및 생존자 접촉 요령 Tips for dealing with victims and survivors	103
6 영상기자의 도전과제 Challenges for visual journalists	111
7 위기를 통한 코칭 Coaching through crisis	120
8 자신 돌보기: 자각이 중요 Self care: Awareness is key	127
9 맺음말 Final thoughts	130
부록 재난보도준칙	133

## 취재 기자를 위한 재난보도 매뉴얼

---

DISASTER & CRISIS COVERAGE

1부







“재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정상적인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 놓을만한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정의다. 기자들에게 재난이란 심층 보도를 요하는 일종의 특종 뉴스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잘 한다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심층적인 재난보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베테랑 기자이자 컨설턴트인 마이클 마르코트(Michael Marcotte)에 따르면 언론사는 위기시 4가지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언론사는 정보 제공원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누가 영향을 받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또 왜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언론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생명줄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정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들로부터 핵심 정보를 전달받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춘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적시에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는 지역사회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사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걱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언론사의 책임을 다시금 재인식함으로써 기자들과 언론사의 경영진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국제언론인센터(ICFJ)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심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베네수엘라 출신의 참가자는 워크숍 덕



분에 다음 해에 카라카스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편집국 내 분위기나 재난보도 방식이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홍수가 발발했을 때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지만, 이 참가자의 편집국은 정전 및 교통 대란 사태에 대처할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ICFJ의 요청으로 NewsLab (<http://newslab.org>)의 데보라 포터와 닥트 센터(Dart Center) (<http://dartcenter.org>)를 대표해 세리 릭카르디가 작성한 온라인 가이드북은 전세

계 언론인들의 재난보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구나 언제,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모든 언론사의 편집국은 어떤 종류이건 위기 상황을 보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해 미리 어떻게 재난보도를 할 것인지를 준비한다면 이는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가이드북은 맥코믹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남미 국가 기자들과 미국 내 남미출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 편집국의 준비사항

Newsroom preparation



편집국은 재난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이러한 계획안은 언론사들이 각각 자체적으로 수립하지만, 주요 재난보도 경험을 가진 여러 편집국 책임자들에 따르면 재난보도 계획이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 ◆ 직원들의 집 주소 지도를 포함한 전 직원 연락망—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에서 가장 인근에 위치한 직원들에게 즉시 연락하여 피해 현장에 투입시킨다.
- ◆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직원들에게 통보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재난보도 계획은 편집국뿐만 아니라 광고, 발행, 제작 담당 직원 및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해당된다. 심지어 재난 발생 시 모든 직원에게 각각의 개별 임무와 보도 장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재난보도 계획 실행 시 직원들의 연·월차 및 휴가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계획에 수록하도록 한다.

-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취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편집국 내 모든 직원이 준수해야 할 “보도 시작 가이드”
- ◆ 편집국 직원들의 책임 및 구체적인 임무—피해 현장에 파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자들, 사무실에 남아서 취재한 내용에 관한 기사를 쓰고 전화 보도를 맡게 될 기자가 누구인지 명시한다. 재난보도 계획은 또한 전화 응답이나 음식물 제공 등 뉴스 보도 지원을 위한 편집국 이외 직원들의 임무 할당을 포함한다.
- ◆ 보도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대조(8 또는 12 시간) 인원 투입을 위한 빈 일정(blank schedule) 수립



- ◆ 재난 대응 관련 비상 대책 본부, 주요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 연락망
- ◆ 편집국 직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인력 관련 연락망(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위치한 프리랜서 기자, 뉴스 기관)
- ◆ 재난 대응 관련 비상 대책 본부, 주요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 연락망
- ◆ 긴급 장비 대여 관련 연락망(발전기, 통신, 운송 등)
- ◆ 편집국에서 다뤄야 할 다양한 종류의 재난 관련 배경 정보 — 벨기에 소재 재난역학연구센터(CRED;

<http://www.cred.be/>)는 검색 가능한 종합적인 세계 재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언론인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 특정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ttp://www.emdat.be/Database/terms.html>)

### **재난 상황의 예**

- ◆ 자연재해(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폭설, 산불, 지진, 화산 폭발)
- ◆ 사고(비행기 추락, 열차 탈선, 버스 충돌, 폭발, 화재, 건물 붕괴)
- ◆ 유해물질(화학물질 누출·유출, 원자력 발전소 사고)
- ◆ 테러 행위(생물/화학/핵 테러 또는 재래식 화약 테러)
- ◆ 공공안전 위협(인질 납치, 저격 공격, 전염병 확산)



# 재난보도 계획 수립

How to develop a disaster plan



재난보도 계획을 아직 보유하지 못한 편집국을 위해 재난보도 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만약 계획이 이미 있다 하더라도 본 가이드를 살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바란다.

## 전담 그룹 편성

편집국뿐만 아니라 제작 및 엔지니어링, 시설 담당 직원들을 포함해 뉴스 기관의 각 부문에서 구성원을 모집하며, 뉴스 기관 전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신문협회매니저(Newspaper

Association Managers; NAM)는 언론사들이 가이드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재난 점검표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nammanagers.com/NAMERS%20Sharing%20Information/Disaster%20Checklist/Disaster%20Checklist.pdf>)

### **직원 연락망 구축**

전 직원 명단을 출력물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업데이트한다.

직원 명단에는 직원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정확히 표시해 둔다(지도를 첨부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임). 이 밖에 다른 핵심적인 정보(예: 4륜구동 차량 보유 여부, 응급조치 교육 수료 여부, 아마추어 무선 교신 자격 여부 등)도 포함시킨다. 응급 상황 시 담당공무원, 주요 공공기관(학교 포함), 재난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도 사전에 확보해 둔다. 전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이 명단을 코팅하여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명단 작성 시 아래 링크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http://www.rtnda.org/media/pdfs/education/fellowships/rias/crisis.pdf>)

### **협력 관계 구축**

재난 발생 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정보 제공원들 예를 들면, 재난방재기관 공무원, 군장교, 병원의 의료전문가, 재난 관련 전문가, 구호 단체 관계자들(국제구호단체 명단은 <http://www.alertnet.org/thepeople/whowhatwhere.htm>. 참조)과 재난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평소 관심

을 표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을 경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평소 협력 관계를 잘 다져놓고 기자들의 재난 지역 접근을 위해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또한 기자들의 문의 전화에 구체적으로 응대해줄 가능성 역시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 **지역 지도 확보**

편집국 내에 지역별 최신 지도를 구비해 놓는다. 위기 발생 시, 여분의 지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GPS 기술에만 의존에서는 안 된다. 자칫 응급 상황에서는 GPS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건물 및 군사 시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공 장소 등 잠재적인 테러 공격 대상물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놓도록 한다. 또한 모든 병원과 응급의료센터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놓는다. 정부 건물과 교통 환승 지점을 비롯해

유독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지점 등이 포함된 지도도 확보한다.

### **예상 시나리오 조사**

과거의 재난 사태를 돌이켜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당국과 편집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배경 지식 및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편집국 내 모든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향후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Preview of Destruction'에 링크]. 지역의 재난대책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입수한다. 가능하다면 모의 훈련에 참가하도록 한다.

### **직원 대상 교육 실시**

기자과 편집장을 세미나에 참석시켜 잠재적 위협과 예상 시나리오 등을 이해하도록 하고, 전문가를 편집국으로 초청하여 다음 주제와 관련한 오찬 간담회 등을 개최

한다.

- ◆ 원자력 발전소 작동 원리
- ◆ 홍수 취약 지역과 원인
- ◆ 광산 운영 시스템
- ◆ 제조업 혹은 화학제품 생산 공장의 운영 현황
- ◆ 교도소
- ◆ 인프라 담당 시 당국

재난보도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역시 고려해볼 만 하다. BBC는 위험지역에 파견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위험 환경 대비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는 위험 상황 보도와 관련하여 유용한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ttp://cpj.org/reports/2003/02/journalist-safety-guide.php>).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작동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로이터재단은 온라인 ‘응급처

치 핸드북'을 활용하고 있다. (<http://www.newssafety.org/images/stories/pdf/safetyresource/guides/firstaidhandbook.pdf>)

### **일상 업무 점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 정전이 되면 은행 현금인출기가 작동하지 않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뉴스 보도 차량은 언제, 어디에서 주유를 하는가? 현재 한 곳의 주유소에서만 주유를 한다면, 만약 이 주유소가 문을 닫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배터리는 언제 충전하나? 메인 서버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노트북에 있는 컴퓨터 파일들을 언제 백업하나? 매 교대조 교체 시 차량 주유, 배터리 충전, 파일 백업 등을 일상업무의 일부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재난으로 인해 편집국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도 방송이나 출판 업무는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 사전 제작

기후로 인한 재난 사태나 비행기 충돌 등과 같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의 경우, 가상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보도에 필요한 그래픽이나 디자인 등을 사전에 제작해 놓음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공항 활주로, 기차역, 버스정류장, 주요 사무실 빌딩 등과 같은 중요 지점의 지도는 바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V 방송용으로는 각 기자마다 기자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해, 기자별 그래픽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전화 생중계 보도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재난 사태 발생 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어떤 종류인지 예상하여 사전에 모의 웹 페이지를 제작해 놓을 수 있다. 태풍이나 홍수처럼 예측가능하고 계절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의 경우에는 생존대책 가이드를 사전에 제작할 수도 있다.

## 장기전에 대한 대비

재난 발생 기간 동안 직원들이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



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직원들의 경우는 가족들 역시 회사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다. 물, 음식, 옷, 담요, 손전등, 배터리, 응급처치장비 등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 놓는다. 이들 물품 재고를 누가 얼마나 자주 체크할 것인지도 결정한다. 가능하면, 필요 시 근처 호텔에 직원들이 묵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호텔과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놓도록 한다.

### **운영 절차 확립**

내부 경영진 회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표준 운영 절차 변경 과정을 미리 결정해 놓아야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게 될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 **신문**

신문 규격 확대, 인쇄 중 인쇄기 재편성, 광고 섹션 이동, 신문 지면 재구성 문제 등을 결정

## **TV 및 라디오**

언제 방송을 내보내고, 광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언제 정규 방송을 재개할 것인가를 결정

## **온라인**

온라인 트래픽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대역 포맷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 광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진과 동영상을 어떻게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결정

## **재난보도 계획 연습**

일단 재난보도 계획이 마련되면, 경영진이나 편집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조직 내 전 직원에게 이를 배포한다. 컴퓨터에 입력하여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한편 출력을 통해 여러 부 인쇄본으로도 제작한다. 신입 직원들에게도 재난보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적어도 6개월마다 재난보도 실전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재난보도 계획을 수정한다. 실제 뉴스 보도

상황에서 재난보도 계획을 활용한 후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검토를 실시한다.



## 남미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10대 재난

과거 수십 년간 남미·카리브해 지역의 재난 발생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교(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의 후안 파블로 사미엔토(Juan Pablo Sarmiento)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부분적으로 재난 발생에 대한 인식 확대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한다. 사미엔토 교수는 또한 재난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소들과 이 지역 내 인명·재산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환경 파괴, 토지사용에 대한 관리 부재, 잠재적 위험 요소 인근에 거

주하는 인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사미엔토 교수는 미국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을 포함한 남미 지역 내 재난빈발(disaster-prone) 도시들의 물리적·사회적 취약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재난 위험 측정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http://news.fiu.edu/?p=174>)

남미 지역이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재난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사미엔토 교수가 남미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10대 재난을 선정했다.

## **폭력**

세계은행은 남미·카리브해 지역을 전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 사미엔토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매년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5,000명에 달한다. “콜롬비아의 사례연구를 보면 폭

력 관련 사망자가 한 해에만 38,070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1985년 네바도텔루이스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수의 두 배다”라고 사미엔토 교수는 말한다.

이 지역 여러 국가들에서 마약 밀매 및 노상 범죄(street crime) 관련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의 보고에 따르면 폭력 및 부패 관련 보도 기자들이 타깃이 되어 왔다고 한다. (<http://cpj.org/reports/2009/03/getting-away-with-murder-2009.php>)

## 사고

교통 사고가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위험요소들 역시 상존하고 있다.

즉, 화학물질 유출, 폭발, 광산 붕괴, 화재 등의 산업재해 등을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는 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 산사태

산사태·진흙사태·눈사태는 수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재해 중 하나다.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사고가 수십 건 발생했으며, 대부분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에서 나타났다.

## 화산

현재 이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비옥한 화산지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할 경우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사미엔토 교수는 말한다. 사이언스데일리(Science Daily)에 따르면 칠레와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를 잇는 안데스 산맥 지역에 현재 200~300개의 활화산이 존재한다.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08/05/080507105654.htm>)

2008년에는 칠레 차이텐(Chaitén) 화산 폭발로 인해 5,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한 바 있다.



### **홍수와 가뭄**

중미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은 짧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특히 10월과 11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사미엔토 교수는 말한다. 태평양 지역은 가뭄, 카리브해 지역은 홍수의 피해를 주로 입고 있다.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가뭄에 취약한 모습이다.

### **기후변화**

극심한 가뭄과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엘니뇨”와 “라니냐”가 초래한 기상이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경제적 타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al Environment Program; UNEP)에 따르면 1997~98년, 페루의 수산물 수출이 76% 가량 급감한 바 있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미국 국립기후 연구센터(U.S.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는 남미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남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자연재해의 위협에 놓여 있다. 대규모 폭풍의 증가와 산악 지역 빙하 감소, 질병의 만연이 그것이다”라고 NCAR의 프로젝트 매니저, 로렌스 부자(Lawrence Buja)는 설명한다. (<http://www.sciencecentric.com/news/article.php?q=09062657-ncar-teams-with-idb-help-latin-america-prepare-climate-change>)

## **쓰나미**

이 지역에서 해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쓰나미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사미엔토 교수는 말한다. 실제로 1960년, 칠레 발디비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여파로 4,000명이 사망했다.

###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

중미 지역과 미 남부 지역은 허리케인에 특히 취약하다. “현재 건축 관련 법규와 건축 자재가 전보다 보강된 상태이나, 여전히 대규모의 인구가 이러한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사미엔토 교수는 말한다.

### **지진**

이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지진 위험은 도시화로 인해 그 여파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약 콜롬비아 보고타(Bogotá) 인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중앙 정부 및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 질병

2009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H1N1, 소위 “돼지독감”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서 보듯,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특히 유행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에 매우 취약하다. 이와 더불어 2009년 당시 Dengue열의 확산으로 인해 볼리비아에서 5만 명, 아르헨티나에서는 8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미엔토 교수는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40%가 가금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조류독감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행성 인플루엔자에 관한 언론인 핸드북을 온라인 상에 게재하고 있다. (<http://www.newssafety.org/images/stories/pdf/safetyresource/guides/avianflu.pdf>)

자연재해에 관한 더 많은 배경 정보를 얻으려면, CBS 뉴스 인터랙티브를 클릭할 것: [http://www.cbsnews.com/htdocs/natural\\_disasters/html/framesource.html](http://www.cbsnews.com/htdocs/natural_disasters/html/framesource.html)

# 보도 시작 가이드

Newsroom start-up guide



재난 상황이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의 일반적인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재난 상황 발생 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편집국의 전 직원은 재난보도 착수에 앞서 해당 지침을 숙지해야 하며 관리자의 공식 또는 연락 두절 시에도 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장파견

현장에 취재진을 급파한다. 단시간 내에 취재에 착수하여 혹시 제한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취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취재진의 철수가 가능하다.

## **확인**

본사에 연락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해당 재난 관련 전화를 수신하게 한다. 취재진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 출처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의 취재진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한다. 사소한 정보 사항일지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전달에 신중을 기한다.

## **통지**

관리자 연락처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 연락처는 우선순위별로 정리하여 연락 순서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연락이 성사 될 때까지 시도하며 연락을 받은 관리자는 지휘권을 넘겨 받고 나머지 연락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 **책임자의 선임**

편집국과 현장(현장 취재진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책임자를 지정하며, 모든 직원이 책임자 지정 사실을 숙지하도록 한다.

### **기사 게재**

모든 기자들은 현장에서 기사를 송고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TV 기자의 경우 자막 뉴스 올리는 법, 전화 인터뷰나 뉴스 업데이트 방법 또한

숙지해야 한다. 장비 고장에 대비하여 속기와 같은 아날로그적 기법을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평소에 훈련하여 “비상 사태”에 대비한다.

## 편집국 재해복구 계획

Newsroom back-up plan



재난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해 편집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난대비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둬으로써 보도 기관의 방송 및 발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정전 또는 입주 건물 파괴 등 재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보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신문사, 라디오 및 TV 방송국들의 경우에서 아래와 같은 교훈을 도출하였다.

모든 정보는 반드시 백업한다. 편집국 정전 시에는 PC로의 전원 또한 차단된다. 따라서 별도의 재해복구 센터에 컴퓨터 파일의 백업 복사본을 관리한다. 연락처, 재해



복구 계획 등 중요 정보는 종이문서로 관리하는 동시에 백업한 파일 또한 입주 건물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야간과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세트의 보도용 카메라 장비를 입주 건물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모든 촬영기자들이 퇴근 시 장비를 가지고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의 장비가 없는 기자들의 경우에는 중저가의 플립형 카메라를 보급하며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한다.

아카이브 및 중요 파일(뉴스, 광고 및 재무 관련)의 복사본은 입주 건물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도표, 지도 및 기타 필수 데이터는 디스크 또는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입주 건물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가능하다면 정전 시에도 편집국의 주요 기능이 작동 할 수 있도록 적정 용량의 예비 전력 공급시설 또는 발전기를 갖추도록 한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다중화한다. 유선 전화의 불통 또는 통신량 급증으로 인한 이동통신 서비스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 전화는 되지 않더라도 문자서비스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정전에 대비하여 기자들이 동일한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예비 통신수단으로 무선호출기도 함께 사용한다. 위성전화를 갖춘다면 유사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편집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두 개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입주 건물 외 각기 다른 두 곳의 장소에 분리 보관한다.

정전 지역이 광범위할 경우에 대비하여 특정 직원의 자택 또는 기타 시설물을 임시편집국으로 지정하여 유사 시 활용한다. 지역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편집국 재해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실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

다른 신문사 또는 방송사와 사전 협의를 맺고 위기상황 발생 시 발행 시설 또는 TV 및 라디오 방송 전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취재 일정이 확정된 뉴스 컨퍼런스 및 기타 행사의 경우 재난 발생 후에도 예정대로 취재 및 보도를 수행하기 위해 언론사들의 인력, 장비 및 설비 등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타 언론사들과 사전에 논의한다.

재난으로 인해 주요 보도 매체를 통한 방송 또는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문자메세지를 활용하여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개인적인 준비

Personal preparation

### 주

재난보도는 보통 며칠 안에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진다. 기자 본인은 물론 종종 가족들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경험이 될 수 있다. 사전 준비를 통해 기자는 주어진 임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양질의 보도를 제공할 수 있다.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자와 사진기자들의 경우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방을 미리 싸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재난 대비용 물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 **필수용품**

전화기, 카메라/녹음기, 공책, 볼펜, 명함

## **예비용품**

연필, 건전지, 충전용 어댑터(차량 장착용), 전화카드,  
현금 및 동전

## **생존**

식수, 비상식량(에너지 바, 프로틴 바 등), 세면도구, 구  
급함,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 손 세정제, 물티슈, 반창고,  
건전지 작동 또는 크랭크 자가발전 라디오, 나침반, 지도

## **날씨**

선크림, 방충제, 모자, 부츠, 휴대용 우비, 플리스 폴오  
버 스웨터, 손난로

## **실용품**

손전등(헤드램프), 망원경, 맥가이버 칼, 소형 및 대형

비닐봉투, 고무줄, 박스테이프, 온도계

## 참조

응급조치 지침(<http://www.newssafety.org/images/stories/pdf/safetyresource/guides/firstaidhandbook.pdf>), 유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요약 지침(<http://www.cdc.gov/niosh/npg/>), 테러위협에 대한 참고자료(<http://www.nae.edu/nae/pubundcom.nsf/weblinks/cgoz-642p3w?opendocument>).

특히 재난 중에도 방송에 모습을 비추어야 하는 TV 기자들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여벌의 옷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위에 열거된 품목들 중 일부 특히 생수, 기름통, 타이어 펑크 봉합용 실러(*scaler*)는 모든 보도 차량에 필수적으로 비치되어야 한다. 그 외 배개와 담요 또한 차량에 비치하면 좋은 품목으로 일부 기자들이 추천하였다.

## 가족 관련 문제

재난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역



케인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재해의 경우 기자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재난 중에도 업무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개별 기자마다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재난 중에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지속한 경험이 있는 일부 기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본인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말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뉴올리언스 TV 방송국의 뉴스 디렉터를 맡고 있던 앤지오 윌리엄스(Anzio Williams)는 “카트리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전달하는 뉴스가 목숨을 구하는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 위기 보도 운영 방침

Managing crisis coverage



재난 시 편집국 총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장 및 편집국의 인력과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 업무 배정과 통지

현장 직원에게 업무를 배정할 때는 사고 현장, 병원, 관계자 취재 등 업무를 세부적으로 지정한다. 모든 기자 또는 취재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분명히 숙지하는 한편, 다른 팀이 어떤 취재를 배정 받았는지 또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가능한 빈번하게 그리고 널리 공유한다.

편집국 직원들 또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배정하며, 개



개인을 업무 책임자로 지정한다. 한 신문사 편집장이 말했듯이 “(책임자가 없는) 위원회는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한다”.

### **정보 수집**

누가 전화 연락을 담당할 것인가? 경찰서 및 소방서 라디오 교신은 누가 모니터링 할 것인가? TV, 라디오 및 인터넷 모니터링 그리고 공식 기자회견 및 브리핑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모든 직원들이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입수된 정보의 저장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다. 피해 상황, 사상자, 생존자 및 목격자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출처의 연락처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

### **산출물**

Editorial supervisor를 지정하여 신속한 온라인 또는 TV 보도를 위해 기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속보” 배너, 또는 TV 자막 뉴스 업데이트 담당자도 지정한다. 방송의 경우 1인 또는 복수의 프로듀서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앵커에게 정보 전달, 전화인터뷰 주선 및 게스트 섭외를 맡기도록 한다.

### **보급(logistics)**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인력을 어디에 투입할 지 그리고 어떠한 장비 및 지원이 필요한 지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보급 담당자는 직원들의 이동수단 및 숙박

장소를 물색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및 편집국 직원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 **침착한 대처**

편집국 책임자는 편집국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특정 업무에 어떤 직원을 배정할 지 고민해 침착한 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한다. 편집국의 분위기가 보도 자체에 드러날 수 있다. 편집국이 혼란스러운 경우 보도가 차분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장 직원들을 잘 살펴야 하며 TV, 라디오 및 온라인 영상방송의 경우 기자들이 생방송 전에 자신을 추스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한다.

### **편집에 대한 올바른 결정**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보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 한다.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체계를 정립한다. 예를 들면,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전화하는 제보자들의 말을 무턱대고 믿지 않는다. 여러 질문을 통해 목격 당시 제보자와 실제 사건 현장과의 거리를

검증하고 정보 활용 전에 제보자의 동기를 파악하려 노력한다. TV나 라디오 생방송의 경우에는 올바른 결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마련이다. 현장의 폭력 사태가 제어 불가능 하거나 사상자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보도를 중간에 자르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해 놓도록 한다.

### **직원들에 대한 배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근무 스케줄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2교대 근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다. 직원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퇴근을 강제한다. 허리케인이나 산사태와 같은 재해의 경우, 직원들 또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의安危와 집의 피해 정도를 궁금해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최선을 다해 직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협조해야 한다.

## **타지 기자들의 파견 대비**

사건의 규모가 큰 경우, 지역 내 보도에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파견되는 기자들을 상대할 직원을 1인 지정한다. 단, 양질의 보도를 위해 해당 사건 담당기자는 제외한다.

## **지원 요청**

뉴스그룹 소유주 또는 뉴스 서비스 제휴사에 지원을 요청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본사의 도움을 받는다. 프리랜서들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일례로, BBC의 유행성 독감 발병 대비계획에서는 많은 수의 직원들이 감염된 상황에서도 뉴스 보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해 두고 있다.

## **생각할 시간 확보**

단지 몇 분짜리 회의에 불과할 지라도 한 두 시간마다 관리자 회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관리자 회의는 미리 계획해 두지 않으면 소집이 어려움을 만드시 기억한다.

##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

직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되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설명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AP 통신은 내부 비상계획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삽입하였다: “안전을 생각한다: 최우선 과제는 당신과 가족의 안전이다.”



침착하게 대처한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본인의 일처럼 대한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혼란 및 긴장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상황을 설명할 때는 상세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 방송기자는 어조에 신경 쓰며 성량, 목소리의 고저, 말하는 속도 또한 적절히 조절한다. 생방송 전에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방송 중에 기자가 본인의 감정을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NPR)의 로버트 시겔(Robert Siegel) 기자와 멜리사 블록(Melissa Block) 기



자는 2008년 8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간 중국 대지진 취재 당시 생방송 중에 “목이 메이거나” 심지어 울기도 했으나 이는 참사 보도에 사실성을 더해 주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재난보도에 있어 보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자는 두려움을 내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정보는 가능한 한 충실히 제공**

뉴스 속보의 경우, 기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도를 늘려서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확인되지 않은 목격자의 증언을 조심한다. 확인된 사실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인지 또한 정리하여 보도한다. 알려진 사실 중에서 오보가 있으면 정정한다. 인질극 상황에서 특공대의 이동과 관련된 사항과 같이 보도 제한이 필요한 정보의 경우 가능한 선에서 시청자들에게 정보 제공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 추측 자제

모든 정보는 그 출처를 확실히 밝히거나 출처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인다. 방송 중에 또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추측성 보도가 오보였을 경우, 정정보도 후에도 잘못된 정보가 계속 전파되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출처 다각화

라루카 코즈마(Raluca Cozma)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와 같은 다양한 출처를 이용하는 것이 보도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여러 출처에서 수집한 정보에 개인적인 설명을 덧붙인 보도가 가장 많은 관심과 신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qa3677/is\\_200607/ai\\_n19431795/?tag=content:col1](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qa3677/is_200607/ai_n19431795/?tag=content:col1)).



### **배경 설명**

과도한 단순화 또는 동일화는 사실 왜곡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한다. 하지만 배경 설명을 덧붙여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권장한다.

### **전문가다운 자세 유지**

언론 및 연락 담당관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 공손하고 전문가답게 행동하되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언론보도를 제한하려 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대응 방

안을 사전에 생각해 둔다.

### **일정 파악**

시작 단계에서는 관계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으나, 기자는 브리핑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언제 발표될 것 인지 질의할 수 있으며 그럴 의무가 있다.

### **질문 시 신중한 어휘 선택**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자들의 답변 여부가 달라진다—잘 다듬어진 신중한 질문은 답변 가능성을 높인다.

- ◆ **공중보건:** 어떤 위험이 있으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환경/경제:** 피해규모는 어떠하며 복구 방안은 무엇인가? 언제쯤이면 보건에 대한 우려 없이 접근이 가능한가?

- ◆ **첩보/국가적 대응:** 이번 사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 며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지도 제공**

지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피해지역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부 기관에서는 지도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사우스 플로리다 선-센티넬(Sun-Sentinel)의 존 메인즈(John Maines) 편집장은 허리케인이나 지진의 예상경로 및 피해범위 등에 대한 정보는 Air Worldwide ([www.air-worldwide.com](http://www.air-worldwide.com)), 피해지역의 고해상 위성이미지는 Space Imaging ([www.spaceimaging.com](http://www.spaceimaging.com)) 과 DigitalGlobe ([www.digitalglobe.com](http://www.digitalglobe.com))를 추천한다.

## **영상 확보**

영상을 이용하면 재난의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중요 지역에는 라이브 웹캠과 스트림 비디오를 설치한다. 촬영기자에게 근접촬영에만 치중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와이드 샷으로 촬영된 사진은 맥락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항공촬영 또는 하이앵글 샷 또한 확보한다. 피해지역의 이전 사진을 입수하여 지면이나 인터넷 상에서 나란히 비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이미지를 구해 온라인 상에 슬라이드 쇼를 제공할 수도 있다.

###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

온라인 상에 발빠르게 정보를 게재할 뿐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최신정보를 퍼트린다.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업데이트 또한 활용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뉴스 피드에 의존한다.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 유지 방안

Staying safe



재난 현장에 파견된 기자는 기사뿐 아니라 본인의 안전에도 집중해야 한다. 기자가 위험에 처하면 결국 해당 뉴스기관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 재난 현장은 혼란스러우며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 유지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두도록 한다.

### 사전 대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파견되는 기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회사에서 연수를 제공

한다. 회사에서 별도의 연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하며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안전 유지를 위한 팁은 미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위협한 상황 하에서의 언론 보도 지침(Guide to Reporting on Dangerous Situations) (<http://cpj.org/reports/2003/02/journalist-safety-guide.php>), 위협에 처한 언론인(Journalists at Risk) ([http://www.journalistsatrisk.org/safety\\_tips.php?CID=4](http://www.journalistsatrisk.org/safety_tips.php?CID=4)) 그리고 국제뉴스안전기구(International News Safety Institute) (<http://www.newssafety.org>)를 참조한다.

## **연락 유지**

현장에 파견된 취재원은 적어도 한 명 (보통 supervising editor)을 지정하여 항상 자신의 위치, 면담 대상 및 복귀 예정 시간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는 사람은 긴급상황 연락책 목록을 관리하고 취재원이 예정된 시간에 복귀하지 못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들을 숙지해야 한다.





### **위험의 최소화**

파트너와 동행한다. WNTC 라디오의 베스 퍼티그 (Beth Fertig) 기자와 마리엔느 매쿰(Marianne McCune) 기자는 9·11 뉴욕 테러 취재 당시 한 팀으로 일하며 서로 침착을 유지하고 인터뷰를 위한 목격자도 함께 물색하였다.

### **현장 접근(안전에 유의)**

재난 현장에 기자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한다.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가.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현장에 잠

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방탄복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착용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독면이나 안전복은 위험 지역에 머물러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대피 시 생존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화학물질 유출 또는 화학무기 공격을 취재하는 경우 저지대를 피하도록 한다.

### **타깃이 되지 않도록 유의**

폭동이나 폭력사태를 취재할 경우, 방송국 표식이 있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TV 전원 또한 끈다.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구조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

### **주의**

취재원은 자신의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사 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항상 짐을 간소화해야 한다. 큰 폭발음과 같은 범상치 않은 소리나 뭔가 이상한 광경(특정인이 어색한 장소에 있거나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조심한다. 가스나 증기가 새는 소리를 들으면 위험 현장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것일 수 있다. 맵싸한 냄새가 나는 경우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경우일 수도 있으니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 미국 학술원(U.S. National Academies)이 생화학, 핵 및 방사능 공격과 관련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재원들이 인쇄하여 휴대하기 용이하다. (<http://www.nae.edu/nae/pubundcom.nsf/weblinks/CGOZ-642P3W?OpenDocument>)

### **노출의 제한**

현장에서는 금연한다. 자연 재해로 인해 가스관에 균열이 생겼을 수 있다. 현장에서의 음식물 섭취 또한 피한다. 생화학 물질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다.



보통 재난 발생 후 몇 시간 동안 또는 발생 당일 내내 재난보도의 대부분은 속보다. 하지만 뉴스기관은 거의 재난 발생 즉시 발생 원인 및 파급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으로써 단순히 일어난 사실 뿐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발생 및 진행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관련 문서 확보**

해당 재난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공식 기록을 검색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추락 사건의 경우, 과거 동 기

종이 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락 항공기의 정비 자료 등의 정보를 확보한다.

### **전문가의 자문**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동시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면, 건물 또는 다리 붕괴의 경우, 편집국은 구조 엔지니어(structural engineer)에게 자문을 구한다.

### **지속적인 업데이트**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소식을 입수하고 업데이트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은 정정한다. 부상자들의 상태를 보도한다. 피해 범위 및 복구 예상액에 대한 상세한 정보(향후 변경될 수 있으나)를 제공한다. 공식 조사 또는 법정 소송을 취재한다. 구호 및 재건 활동을 지속 취재한다.

## 전문성 활용

다른 뉴스 기관에서 놓쳤을 수도 있는 기삿거리를 포착하기 위해 취재기자를 배정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 기자가 학생들의 피해상태를 알아볼 수 있으며 경제부 기자가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 보도기록의 통합 및 보존

대형 사건의 경우 사건 종료 후에도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이 지속된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관련 기사, 비디오, 슬라이드쇼, 지도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Cedar Rapids)의 Gazette지는 “유례없는 대형 홍수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 블로그를 열었다. (<http://iowafloodstories.com/blogs/>)

## 심층 보도

재난 대비태세 및 예방조치에 대해 조사한다. 이런 류의 기사에는 사건 기념일에 맞추어 준비하면 좋다. 정부

의 재난 대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재난에 대비하여 각 지역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 사람들의 활동이나 정부 정책이 환경문제를 악화시켜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 1998년 허리케인 미치로 야기된 니카라과 라스카시타스(Las Casitas)의 산사태는 과도한 벌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패턴 파악**

재난으로 야기된 피해 범위를 면밀히 살핀다. 주변 건물들은 모두 파괴된 가운데 일부 건물들이 여전히 건재한가? 건축 기준, 건축 허가, 유지관리 기록을 검토한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한다.

### **예측**

허리케인과 같은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한 행동요령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엔리케 플

러(Enrique Flor)는 팀 동료들과 함께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선-센티넬지의 스페인어판(El Sentinel del Sur de la Florida)에서 2009년 허리케인 시즌 특집을 통해 집을 보호하는 법, 비상용품 목록 및 비상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 인터넷 자료 활용 방안

Internet resources



언론인을 위한 얼러트넷(AlertNet) — 톰슨 로이터스 재단 웹사이트에 비상사태에 관한 배경 정보 및 쌍방향 인터랙티브 차트, 구호 단체 리스트, 기자들을 위한 온라인 트레이닝 등 제공

<http://www.alertnet.org/mediabridge/index.htm>

재난보도 관련 자료들에 접속 가능한 CBS 뉴스 온라인 링크

<http://www.cbsnews.com/digitaldan/disaster/disasters.shtml>

기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뉴스를 보도할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  
<http://cpj.org/>

No Train No Gain — 재난 취재 및 언론 전문 트레이너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제공 (<http://www.noTRAIN-nogain.org/train/res/repair/disaster.asp>), “실용적인 가이드” 제공  
<http://www.noTRAIN-nogain.org/Train/Res/Report/disast.asp>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위한 닛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 — 폭력 및 재난 취재 기자들을 위한 자료 제공  
<http://dartcenter.org/>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비상대책 가이드북  
<http://phmsa.dot.gov/hazmat/library/erg>

다트 센터(Dart Center)의 효과적인 재난 취재를 위한 5  
가지 단계  
<http://dartcenter.org/content/five-steps-to-covering-disaster-effectively>

라디오 TV 보도 국장 재단(Radio and Television News  
Directors Foundation)의 생물테러 취재를 위한 언론인 가  
이드  
<http://www.rtnda.org/media/pdfs/bestpractices/newsandterror/bioterrorism/bioguide.pdf>

KPBS 위기 보도 계획 — 미국 지역 라디오방송국의 접  
근법  
<http://www.current.org/news/news0118crisiscoverage.shtml>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희생자와 미디어를 위한 프로그  
램 — 재난의 라이프사이클  
<http://victims.jrn.msu.edu/public/newslet/spring01/disaster.html>

미디어심리학 교수 스투어트 피쇼프(Stuart Fischhoff) —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의 책임  
<http://www.calstatela.edu/faculty/sfisco/MEDIA%20and%20Crisis%20Coverage.htm>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지진, 쓰나미, 테러위협 등 위험요소에 관한 가이드  
<http://www.flash.org/>

## 취재 기자를 위한 재난보도 매뉴얼

---

DISASTER & CRISIS COVERAGE

2부





비극적인 상황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취재·보도야말로 기자들이 하는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남미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 언론사가 앞다투어 군사 쿠데타 후 잇따른 폭동 장면들을 보도하고자 온두라스로 몰려들었다. 멕시코에서는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는 마약과의 전쟁, 암살 등이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니카라과, 과테말라와 인접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뉴스 보도를 통해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힘

들지만 참으로 보람된 일이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남길만한 사건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

- ◆ 기자들이 비극의 희생자, 생존자, 증인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가?
- ◆ 트라우마로 인한 감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연구에 있어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프랭크 오흐버그(Frank Ochberg) 박사는 기자들이 트라우마성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위기 상황에 관한 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을 보다 잘 돌볼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자들의 사건 보도 방식은 지역사회가 비극에 대처





하는 방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오호버그 박사는 말한다. 오호버그 박사는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위한 다탈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의 명예회장이자 창립자다.

오호버그 박사는 극단적인 충격, 트라우마, 비극 발생시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정확한 보도 기사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장에서는 다트 센터(Dart Center)를 비롯해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여러 언론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다. 따라서 이는 최종적인 지침이 아니며, 다만 기자들이 트라우마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개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트라우마성 스트레스의 이해

What is traumatic stress?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관과 의료진, 경찰과 같은 긴급구호요원들은 감정적인 후유증을 겪게 된다. 긴급구호요원의 범주에 속하는 기자들 역시 이러한 타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정상적인 트라우마성 스트레스(traumatic stress) 반응과 이보다 심각성이 훨씬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극에 직면했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는 나약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증상은 3~4주 안에 완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건에 노출될 경우 PTSD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트라우마성 스트레스의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여파가 쌓이면서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의 신호와 증상, 대처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미 지역 언론에게 있어 이것은 특히 더 중요한 문제다. 의료 전문가들은 기자들이 타국이 되는 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할 경우, 트라우마성 스트레스 위험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고 경고한다.

2009년 2월 보고서에서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는 “멕시코에서 영역 다툼 중인 강력 마약 밀매 조직, 브라질 슬럼가의 준군사 조직 갱단, 콜롬비아 분쟁 지역의 게릴라와 준군사 조직,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거리의 폭력갱단 등이 기자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CPJ는 기자들에게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멕시코를 선정했으며, 남미 전역에서 발생한 미디어 관련 공격 사례들을 목록화하여 발표했다. (<http://cpj.org/2009/02/drugs-violence-press-latin-america.php>)

# 트라우마성 스트레스의 징후

What are the signs?



트라우마성 스트레스는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지각 능력과 기억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충격의 재경험(re-experiencing)**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의식세계를 침범한 뒤 사라지지 않는 증상.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러한 기억이 flashback 또는 반복적인 악몽으로 악화되는 경우다. 일부 기자들은 이것을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다(haunted)”고 표현한다.

### **과다 각성(Hyper-arousal)**

안절부절 못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낼 수 있다. 아기 울음소리 또는 앰블런스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당시 트라우마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 **감정의 회피 또는 무감각(Avoidance or numbness)**

과거의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상황이나 자극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증상. 알코올 또는 약물 과다복용을 통해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가까운 인간관계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 **트라우마 목격 이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

아래의 예들은 트라우마성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간주한다.

- ◆ 충격
- ◆ 과민함

- ◆ 불면증
- ◆ 분노
- ◆ 죄책감
- ◆ 비통함
- ◆ 슬픔
- ◆ 감정적 무감각
- ◆ 무기력
- ◆ 사랑 또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함

### **문제적 반응**

일부 드물게 나타나는 반응들의 경우 정신질환 전문가 또는 의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아래의 예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반응들이다.

- ◆ 공황/비이성적 두려움
- ◆ 끔찍한 악몽
- ◆ 집중력 장애
- ◆ 과도한 불안



- ◆ 통제력 상실/미칠 것 같은 두려움
- ◆ 무가치감/수치심/자존감 상실
- ◆ 자책
- ◆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

가장 심각한 증상은 환각이나 기이한 생각/영상을 떠올리는 정신병적 증상들이다.

## 주

트라우마성 스트레스(traumatic stress)는 우리 대부분이 일생 중에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충격적이며 놀랍고 공포스러운 특정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압박감, 물리적 폭력 혹은 부담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트라우마의 예로는 다른 사람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자연재해, 교통사고, 전쟁 및 기타 폭력적인 충돌, 아동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성 폭력 등 사람들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를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한다.

일부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트라우마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사건 발생 후 몇 주 동안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렵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자들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자기관리방법을 알고 있을 경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정신과협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나는 트라우마성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 PTSD 진단을 내리고 있다.

- ◆ 실제 죽음 혹은 죽음에 대한 위협, 심각한 부상 혹은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에 대한 위협 상황을 경험/목격하거나, 이러한 상황 혹은 사건에 직면한 경우
- ◆ 트라우마성 사건에 대한 반응 시 극도의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

다트 센터(Dart Center)의 프랭크 오흐버그(Frank Ochberg) 박사는 PTSD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트라우마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라도 PTSD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사례: 십자포화 속의 진실**

익명의 제보자가 지네스 베도야 리마(Jineth Bedoya Lim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콜롬비아 보고타 인근의 감옥에 수감 중인 불법무장단체 지도자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한다는 의향을 전해 왔다. 당시 리마 기사는 El Espectador라는 신문에 근무하며, 콜롬비아 정부와 불법무장단체들간의 충돌 상황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었다.

감옥 방문을 위한 보안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리마 기자는 총을 겨눈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를 당한다. 그날 밤 한 택시 운전사는 양 손이 묶인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가 쓰레기 더미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리마 기자는 괴한들로부터 흠뻑 두들겨 맞은 후 윤간을 당한 후였다. 사건이 발생한 2000년 5월 25일, 그녀를 납치한 무장 세력들은 “잘 봐라. 이것이 우리가 콜롬비아 언론에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여기자 납치 이유를 밝혔다.

사건 발생 15일 후, 리마 기자는 경호원들의 보호 하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국제여성미디어재단(International Women's Media Foundation)이 수여하는 용감한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나는 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합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커다란 만족감을 느꼈지만 동시

에 기자라는 직업은 저에게 커다란 슬픔도 안겨주었습니다”라고 미국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리마 기자는 이후 보고타로 돌아가 El Tiempo 신문사로 이직했다.

American Journalism Review지를 만나 콜롬비아 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리마 기자는 과거 자신이 경험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어떤 날은 그들이 왜 날 죽이지 않았는지 궁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슬픔과 그 날의 기억 때문에 우울해져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라고 2002년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리마 기자는 힘든 시기에 동료들의 응원과 지지가 많은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해외에서도 지원과 격려가 이어졌다.

오호버그 박사는 리마 기자와 그녀의 동료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주선하였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취재를 해야 하는 콜롬비아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주도했다. 하지만 리마 기자의 고통은 여기에서 끝

나지 않았다.

이후 리마 기자는 한 번 더 납치를 당했다. 게릴라들의 위협 하에 코카인을 강제 제조하고 있던 한 마을에 잠입해 들어가 취재를 하던 도중, FARC 게릴라들이 그녀를 납치했다. 지역의 신부와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녀와 사진 기자를 구출하기 위해 애쓴 덕분에 두 사람은 2003년 8월에 석방되었다. 리마 기자는 “이것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현재도 계속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http://www.ajr.org/article.asp?id=2749>, <http://www.iwmf.org/article.aspx?id=388&c=articles>)

## 희생자 및 생존자 접촉 요령

Tips for dealing with victims and survivors



기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의 하나는 바로 중대한 사건을 겪은 희생자, 생존자, 목격자들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재난 발생 시, 보통 사람이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충격을 받은 상태로 슬픔에 잠겨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한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카메라와 마이크, 녹음기가 들이닥친다.

한편 기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진실을 전달하는 일 —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

다음은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미디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 질문을 하거나 촬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 인지를 침착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힘.
- ◆ 희생자 개개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함. 기자들은 현명하게 행동해야 함.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 하는 동시에 소극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됨.
- ◆ “기분이 어떠십니까?” 혹은 “어떤 기분이신지 이해 합니다”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됨.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후에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셔서 유감입니다” 혹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을 보니 유감입니다”라고 운을 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화법임.
- ◆ 희생자나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단답형이 아닌 질문들을 할 것. “언제 이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까? 현재까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비행기 사고로 아들

을 잃은 어머니를 취재하는 경우에는 “후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적절한 대화법이 될 것임.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할 것. 이런 질문은 판단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지만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 ◆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꺼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을 찾기도 함.
- ◆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보를 얻어내려는 언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한 발 뒤로 물러설 것.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물러남. 다만 일부 언론인들은 명함을 건네면서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추후 연락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함.
- ◆ 희생자들에게 주도권을 줄 것. 인터뷰 동안 앉아 있

는 것이 편한지 서 있는 것이 편한지를 물어보거나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벗어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지 등을 물어봐야 함. 또 “누구를 대신해 이야기 하고 싶으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등 희생자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폭력사태 보도: 희생자와 트라우마에 관한 윤리적 보도를 위한 지침서(Covering Violence: A Guide to Ethical Reporting About Victims and Trauma)”라는 제목의 책에서 로저 심슨(Roger Simpson)과 윌리엄 코테(William Cote)는 기자들을 현장의 경찰, 구호인력, 구경꾼들 사이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기자들은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세계를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하고, 혼란 상황을 자신들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다. 심슨과 코테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끔찍한 경험을 겪고 난 후 균형감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 ◆ 감정적 반응을 예상하고 인터뷰 당사자가 인터뷰를 끝내거나 이야기를 잠시 멈추거나 촬영 중단 등의 의사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해 줄 것.
- ◆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인터뷰를 끝낸 뒤 자리를 뜨기 전에 인터뷰 당사자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다시

되짚으며 확인할 것.

### **사례: 엔리케의 여정**

소니아 나자리오(Sonia Nazario)는 돈을 벌러 떠난 부모님을 찾아 남미에서 혈혈단신 미국으로 넘어온 아이들에 대한 취재를 한 적이 있다. 그녀의 기사에서는 특히 엔리케(Enrique)라는 소년에 대해 집중 취재를 했는데, 엔리케의 어머니는 엔리케가 5살 때 온두라스를 떠났고,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 17살에 노스캐롤라이나행을 선택했다.

Los Angeles Times의 나자리오 기자는 엔리케가 미국 입국을 위해 절박한 노력을 하면서 멕시코에 머물 당시부터 취재를 시작했다. 심층 인터뷰와 관찰 등을 통해 엔리케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나갔다. 나자리오 기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캔자스시티에서 자란 덕분에 스페인어에 능통해 소년들을 상대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정을 담은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

나자리오 기자는 기차를 타고 800마일을 달리면서 이들 아이들이 직면해야 했던 역경과 폭력, 좌절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신발 한 켤레를 위해 강도, 강간,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도 자행하는 강도와 울창한 정글, 사막이 등장하기도 한다.

나자리오 기자가 목격했던 공포는 오히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본격적으로 그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나를 강간하려고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악몽을 꾸게 된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휴식과 치료를 병행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인터뷰를 했던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서 때로는 상당히 깊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휘저어 놓는 것처럼요. 아이들은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라고 Nieman Reports지에서 본인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엔리케의 여정”이라는 시리즈 기사는 2002년 9월 29일-10월 7일 동안 기사화되었고 특집기사 카테고리에서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심슨과 코테는 자신들의 책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나자리오 기자는 엔리케의 이

야기를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http://www.nieman.harvard.edu/reportsitem.aspx?id=100328>)

## 영상기자의 도전과제

Challenges for visual journalists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영상 기자들은 대개 뉴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곤 한다. 그리고 영상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현장에 최대한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해 촬영을 한다.

영상기자들의 경우 현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촬영을 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소니아 나자리오 기자는 이민자 아동들과 여행을 할 당시 자신을 “천장에 붙은 파리(fly-on-the-wall)”에 비유하며, 당시 상황에 참견하지 않고 지켜보는 철저한 관찰자 입장을 취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 영상기자들이



이렇게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기자들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

심슨과 코테는 미국 전국사진기자협회(National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 라디오-TV보도국장협회(Radio-TV News Directors Association) 같은 전문 언론단체들이 가진 지침을 참고해 민감한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였는데, 이 지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 타살이건 자살이건 사람이 죽는 장면은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특히 클로즈업을 하거나, 상처나 피 흘리는 모습 등을 의도적으로 방송하지 않음
- ◆ 생중계 중에도 의도적으로 몇 초간의 시차를 두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혹은 말 것인지)에 대해 책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 영상기자 및 사진/그래픽 편집자와 보도 책임자가 공동으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내보낼 것인지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한 사람의 의견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함

- ◆ 살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거나 보여주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친척들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
- ◆ TV 뉴스 시청자들에게 곧 보게 될 영상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함으로써 해당 영상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방을 나가거나, 아이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지 않거나,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어떤 사진이나 자막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죽음 이전과 이후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들려줌
- ◆ 신문의 1면과 다른 지면에 사진을 게재할 경우, 그리고 흑백 또는 컬러로 이미지를 게재할 때의 효과를 사전에 고려함. 1면에 신기에 너무 적나라한 이미지라도 다른 지면이나 컬러보다는 흑백, 혹은 흙

페이지에 신게 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될 수 있음

- ◆ 생존자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마감시간 압박이 없을 경우 어떻게 좀 더 다르게 처리했을지 등 이전 결정 사항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논의함

### **사례: 영상기자의 딜레마**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강타하고 지나간 뒤 월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Lower Ninth Ward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Times-Picayune지의 베테랑 사진기자인 테드 잭슨(Ted Jackson)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잭슨은 다리를 건너다 강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집의 현관 지붕 난간에서 절박하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잭슨 기자는 이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몇 시간째 현관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



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을 그 곳에서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사진을 찍는 일보다 이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러나 잭슨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딜레마에 빠졌다. “편집장과 전 세계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참으로 찍기 힘든 고통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피해자 가족의 트라우마를 증폭시키고 싶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을 돌려 놓은 뒤 재빨리 카메라를 들었죠”라고 잭슨은 2007년 가을 Nieman Reports에 당시를 회고하는 글을 게재했다. (<http://www.nieman.harvard.edu/reportsitem.aspx?id=100148>)

그리고 신문사로 돌아와 메모리카드를 편집국에 전해 주고는 바로 구명보트와 밧줄을 가지고 다시 그 다리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구조대도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작은 여자 아이가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균형을 잃고 그 여자 아이를 따라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것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잭슨 기자는 자책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보도를 하는 동안 사진기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윤리적인 딜레마는 위기 상황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제 카메라와 노트북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인지는 항상 기자들이 위기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몇 달 후 잭슨 기자는 당시 위기에 빠졌던 가족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무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낚시 배를 탄 십대 청소년들이 그 가족을 구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시다”라고 당시를 회고한다.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피해 여성들 중 한 명이 잭슨에게 왜 그 날 자신들을 버리고 가버렸느냐고 물었고, 잭슨은 밧줄과 보트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답했다. “아 그랬군요. 몰랐어요”라고 여자는 말한 뒤 잭슨에게 “그 사진 한 장만 주실 수 있나요? 한 장만 가지고 있고 싶네요”라고 말했다.

## 지역사회의 트라우마성 사건 보도 요령

다트 센터(Dart Center)가 발간한 소책자 “비극과 기자: 보다 효과적인 보도를 위한 지침(Tragedies and Journalists: A guide for more effective coverage)”에서는 보도 요령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 ◆ 트라우마성 사건 보도가 독자, 시청자, 청취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할 것. 보도의 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의 전반적인 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 희생자들의 삶과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할 것. 예를 들면, 희생자들에 관한 짧은 이야기, 희생자들의 취미, 희생자들이 왜 특별한지, 이들의 삶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내용으로 담을 것.
- ◆ 친절한 행동 등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는지를 찾아내고 이러한 미담을 복구 과정 동안 보도할 것. 이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음.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 대중들이 무엇을 알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보도를 해야 하는지? 지역사회의 이야기는 단체 학살이나 재난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도를 통해 이러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려줄 것.



## 위기를 통한 코칭

Coaching through crisis



뉴스 책임자들은 위기 상황 이전과 전개 과정, 그리고 위기 상황 이후의 뉴스 수집 과정을 통해 기자들에게 코칭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코칭은 종종 간과되기 일쑤다. 이는 바로 재난을 보도하는 기자들에게도 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비교적 생소하게 여기는 주제이기도하다.

“편집장이나 보도국장들은 재난 지역 파견 기자/영상 기자 코칭과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라고 코칭의 대가인 돈 프라이(Don Fry)는 지적한다. 포인터 미디어 연구소(Poynter Institute for Media Studies)의 객원 연구

원인 프라이는 그 동안 전세계 언론사의 편집국 내 소통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마인드가 달라져야 한다. 권위적인 편집국 문화를 바꾸고 기자들의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 다시 말해 경청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프라이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 ◆ 시작-진행-완료 단계로 나뉘서 코칭 실시: 기자들을 현장에 파견하기 이전, 현장 파견 중, 그리고 현장에서 돌아온 이후 기자들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코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 심하게 훼손된 시신과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등 취재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기자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제공. “자신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고 어떤 형태의 사건과 마주하게 될지 사전 예측을 하는 경우,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프라이는 강조한다.
- ◆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

을 “담당 에디터”를 정할 것: 뉴스 수집 과정에서의 새로운 정보를 총괄 수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편, 기자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에 대해 기자 자신들이 느낀 감정을 토로하는 출구 역할을 수행함. “이 담당 에디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프라이의 조언이다.

- ◆ 위기 상황 현장의 취재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 것”. 항상 보도국과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가능한 경우 일 정표를 만든다.

조 하이츠(Joe Hight)는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The Oklahoman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1995년 4월 19일 미국 출신의 티모시 맥베이(Timothy McVeigh)가 오클라호마시티의 연방 청사에 폭탄 테러를 자행,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비극적인 사고 후 하이츠는 재난 사고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재난 사고의 후유증을 효과적으



로 극복할 수 있는 요령을 제시했다.

- ◆ 보도가 시작된 첫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기자와 편집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것. 점차적으로 식사 제공을 줄여나감으로써 기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취재를 가도록 유도한다. 이는 일상적인 업무 패턴으로 복귀할 시점이 되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함.
- ◆ 혹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을 권한다.

◆ 직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잠시 취재 현장을 벗어나 있도록 배려할 것. 가족 모임이나 스포츠 행사 참여 혹은 영화 관람 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 직원들끼리 서로 도와 주도록 독려할 것.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정보를 편집국 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공유할 것. 비공개 카운셀링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편집국 내 비공식적인 정보 교환을 장려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고 자신들이 신뢰하는 동료들에게 마음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 해당 직원이 수행 중인 일이 어려운 임무라는 점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줄 것. 프리랜서나 혹은 심지어 시민 기자들 역시도 비극적인 상황을 보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들 역시

정규직 기자들과 동등한 코칭이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사례: 편집장의 적극적인 참여**

2001년 9월에 자행된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국방성 건물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었을 때 일부 언론사의 보도국장들은 이 끔찍한 테러 현장을 24시간 쉬지 않고 취재하는 현장 기자들과 유대감을 유지하고자 특별히 노력했다.

2001년 9월 13일 New York Times의 편집인이었던 윌리엄 슈미트(William E. Schmidt)는 “지난 몇 일 동안 여러분들은 가슴 아픈 장면들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두려움은 뒤로 하고 취재 업무를 마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정신에 우리는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현

장에서 취재기자로서 혹은 사진기자로서 혹은 편집국의 직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내는 일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있어 큰 헌신이라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슈미트 편집장은 취재원과 출처 제공원을 일일이 열거하는 한편, 목격자들에 대한 응대 역시 기자의 임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또한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공포와 비참한 장면들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자신 돌보기: 자각이 중요

Self care: Awareness is key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전문 카운셀러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 ◆ 나의 한계를 안다.
- ◆ 생활을 최대한 정상으로 유지한다.
- ◆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당시 사고 및 내가 겪고 있는 감정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
- ◆ 긴장이완 운동을 한다.
- ◆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가능한 충분한 수면을 취





한다.

- ◆ 3~4주가 지나도 고통이 계속될 경우, 트라우마 치료 훈련을 받은 정신질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 나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는다.
- ◆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 ◆ 과도한 알코올/카페인 섭취를 금한다.
- ◆ 수면, 음식물 섭취를 장시간 거르지 않도록 한다.

## 동료간의 협력

- ◆ 힘든 시간을 겪은 동료의 이야기를 여유를 가지고 경청한다.
- ◆ 단답형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던진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어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 ◆ 그들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말 것.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 ◆ 그들의 경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마음을 추스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기자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일에 대한 헌신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상사 혹은 동료들의 눈에 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 판단되면 완강한 자세를 취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마초적인 편집국 문화는 서서히 변화해왔고, 위기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영상기자들을 더욱 존중하고 보살피는 긍정적인 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매뉴얼은 저널리즘과 트라우마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뉴스기관들에게 출발점을 제

시한다. 폭력 보도 기자 및 관련 희생자 보호를 위한 다트 센터(Dart Center) 가이드의 스페인어 버전을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http://dartcenter.org/content/tragedias-periodistas-5>)

### **기타 웹사이트 정보**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  
<http://www.icfj.org>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위한 다트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  
<http://www.dartcenter.org>

포인터 미디어 연구소(Poynter Institute for Media Studies):  
<http://www.poynter.org>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  
<http://www.cpj.org>

트라우마성 스트레스 연구를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http://www.istss.org>

국제뉴스안전기구(International News Safety Institute):

<http://www.newssafety.com>

미국 전국사진기자협회(National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

<http://www.nppa.org>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http://www.crisisweb.org>

전쟁과 평화 보도 연구소(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ing):

<http://www.iwpr.net>

## 재난보도준칙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재난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 제1장 목적과 적용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

---

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준칙은 다음과 같은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  
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전쟁이나 국방 분야는 제외한다.

- ① 태풍, 홍수, 호우, 산사태,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과 이에 준하는 자연 재난
- ② 화재, 붕괴, 폭발, 육상과 해상의 교통사고 및 항공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원전 사고 등과 이에 준하는 인  
적 재난
- ③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  
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 ④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  
플루엔자(AI)의 창궐 등 질병재난
- ⑤ 위에 준하는 대형 사건 사고 등 사회적 재난

---

## 제2장 취재와 보도

---

### 1. 일반준칙

제3조(정확한 보도) 언론은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  
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  
게 보도해야 한다.

제4조(인명구조와 수습 우선)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

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5조(피해의 최소화) 언론의 역할 중에는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6조(예방 정보 제공) 언론은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제7조(비윤리적 취재 금지) 취재를 할 때는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 사칭이나 비밀 촬영 및 녹음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제8조(통제지역 취재) 병원, 피난처,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현장 데스크 운영) 언론사는 충실한 재난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10조(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언론사와 제작책임자는 속도 경쟁에 치우쳐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  
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  
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  
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  
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제12조(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재난 발생시 급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  
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  
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취재  
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취재원의 전문성은 충분하며, 믿을 만한가
- ② 취재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  
능성은 없는가
- ③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가
- ④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는가
- ⑤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나 자료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제13조(유언비어 방지)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제14조(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정정과 반론 보도)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독자나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반론 보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 2. 피해자 인권 보호

제18조(피해자 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20조(피해자 인터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21조(미성년자 취재)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피해자 대표와의 접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제23조(과거 자료 사용 자제)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3. 취재진의 안전 확보

제24조(안전 조치 강구) 언론사와 취재진은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5조(안전 장비 준비)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제26조(재난 법규의 숙지)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충분한 취재지원) 언론사는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4.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제28조(구성) 각 언론사는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데스크 등 각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재난현장 취재협의체'(이하 취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가 현장의 여러 문제를 줄이고, 재난보도준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효한 대안이라는 점에 유념해 취재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사전에 이 준칙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취재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준칙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권한) 취재협의체는 이 준칙에 따라 원활한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당국에 현장 브리핑룸 설치, 브리핑 주기 결정, 브리핑 담당자 지명, 필요한 정보의 공개, 기타 취재에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견 개진) 취재협의체는 재난관리 당국이 폴리스라인이나 포토라인 설정 등 취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대표 취재) 취재협의체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받을 경우, 과도한 취재인원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조작업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대표 취재를 할 수 있다.

제32조(초기 취재 지원) 취재협의체는 취재 초기에 취재진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활용품이나 단기간의 숙박 장소, 전기·통신·이동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관계당국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취재협의체는 사후 정산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소요경비를 분담해야 할 경우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제33조(현장 제재) 이 준칙에 따라 취재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언론사의 취재진에 대해서는 취재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소속 언론 단체에 추가제재도 요청할 수 있다.

---

### 제3장 언론사의 의무

---

제34조(지원 준비와 교육) 언론사는 재난보도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 비치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재진의 빠른 현장 적응을 돕는다.

제35조(교육 참여 독려)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언론사는 가능하면 재난보도 담당 기

- 
- 자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 제36조(사후 모니터링)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서 돌아온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다음 재난 취재시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제3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언론사는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 제38조(언론사별 준칙 제정)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 제39조(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제) 언론사는 회사별로,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를 통해 재난관리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와 사후수습,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 제40조(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 제41조(자율 심의)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각 언론사별,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별로 자율심의기구를 만들어 준칙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제42조(사후 조치)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 ① 한국방송협회 회원사, 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
- ②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신문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 ③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

## 부칙

---

제43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개정)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5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